

투데이 칼럼

앞으로 더 다가올 디지털 세상에 대응

인터넷, 디지털 세계에서 수많은 논문과 업로드, 게시물 작성, 검색, 메시지, 스트리밍 등이 빠르게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다.

로리 루이스가 집계해서 올 액세스(All Access) 사이트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web)에서 단 60초에 유튜브에 업로드된 500시간 이상의 콘텐츠, 인스타그램 공유 스토리 69만 5,000건,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송된 메시지 7,000만 건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동영상은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traffic)의 80% 이상이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 우선의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8년에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우리는 동영상 우선인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은 모든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이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환경에서 동영상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OTT 시장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등 규모는 2022년 1조 이상으로 성장하고, 온



김 태 호

온누리평생교육인력양성협회 경영학박사

라인을 통해 구매 활동 및 정보의 공유로 경제의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열어가는 사업으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최근 생성형 AI가 촉발한 기술 발전은 디지털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AI(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디지털 및 기술·산업의 변화를 넘어 디지털이 경제·사회·지역 등 국가 전반의 혁신과 물려를 이끄는 핵심 동력의 역할

에 대하여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 필요 시 공존 시대에 누구든지 디지털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행복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 내용은 5가지 주제의 기본역량 교육 중점 추진 내용은 △분리인증·공공서비스 △금융, 피싱 예방(보안) △인공지능(생성형 AI) △실생활 디지털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진, 영상 등)과 커뮤니티 활동(에티켓)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스마트폰

을 활용하여 병원 예약(특약 / https://ddocdoc.com / 집, 회사, 어린이 집 어디서나 병원 가기 전, 디지털 의료(질병 예방, 진단, 건강관리 등)의 역량과 디지털 금융 이용, 정부 24(민원·신청), 중앙년·고령층은 금전 편취 목적으로 전화로 타인을 속이고 협박하는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예방법), 요소를 정착시키고 있는 키오스크(판매를 위해 마련된 부스) 이용법을 교육, 장애인에게는 ICT(정보통신기술) 보조기기 사용법 및 농업인은 농업 관련 앱 활용, 정보 기술을 이용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디지털 배움터 교육은 전복별자치도 주관으로 전체 도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교육실적은 60대 이상인 60%, 40대~50대는 20%, 10대 이상은 20% 정도라고 한다.

도민들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기초·생활 심화 교육을 희망하면 포털(portal)에서 '디지털 배움터' 들어가서 전북지역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기를 기대한다.

기 고 논

우리가 빛진 또 한 사람... 578돌 한글날에 부쳐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일본 정부에 의해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던 1940년대 한국에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인 '한글 맞춤법'을 최초로 편찬했다. '내가 아는 자유는 곧 언어의 자유'라는 주제의 글을 모두 읽은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갈채를 보냈다. 에세이에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증조할아버지의 이름과 정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고향인 한국에서도 한동안 그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현재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잠들어 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기 위해국어교사 양성, 교재 간행, 국어강습회 개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친 인물로 조선어학회에서 오늘날 국어사전의 모태가 되는 '큰사전' 편찬을 주도하였다. 1986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외래어에 밀려 사라져 가는 나라말을 걱

정했다고 전해진다. 1962년, 정부는 국어국문의 수호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57년 한글날 총 6권의 큰사전 발간이 완료되었을 때, 한글학회 이사장 최현배는 사전 말미에 붙인 발문에 "거친 세파 속에서 이 편찬 사무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천우의 존재로써 가장 오랫동안 중심적으로 각고면려(刻苦勉勵)하여 오늘의 성과를 이룬 이"라는 문구로 그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일제가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의 출판을 일체 금지하는 상황 속에서 한글을 연구하고 사전을 만드는 일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었다. 큰사전은 엄혹했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30년 가까운 긴 세월 편찬 작업을 이어간 끝에 이룬 쾌거였다. 1947년 '큰사전' 첫째 권을 편찬한 이후 둘째, 셋째 권을 잇달아 세상에 내놓았다. 한글 연구자들과 한글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붙잡혀 함흥지방법



최 한 주

장수군의회 의장

관소에서 내란죄를 적용받았고 1945년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때 받았던 모진 고문으로 왼쪽 귀가 굳어버렸다. 1925년 연희전문학교 졸업 후 10여 년간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영어보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1987년 전북 정수에서 태어났다.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알아챈 사람도 있을 테고, 다른 인물을 떠올렸거나 혹은 누구인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모국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나라를 꿈꿨던 미하리의 증조할아버지, 그는 바로 건재 정인승 선생이다. 증손녀를 통해 머니면 타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졌던

역사적 인물이 정작 고향에서조차 업적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청년과 학생 등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점점 더 그를 모르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듯하다. 장수군은 백용성 조사, 전해산 장군, 박춘실 장군, 문태서 장군과 함께 정인승 선생을 5의(義)로 받들고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려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일까?

10월 9일은 한글날이 제578돌을 맞는 날이다. 올해 10월은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 정인승 기념관이 세워진 지 20년째를 맞이하는 달이기도 하다. 장수군은 선안회 발족, 기념공원, 한글학당 건립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그의 일생과 업적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지역의 주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 피땀 흘렸던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 자랑스러운 정인승 박사를 잊지 말자. 한글을 자유롭게 쓰고 읽는 우리 모두는 그에게 빛을 지고 있다.

사 설

빅5 전공의 대표들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연이어 부르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의협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방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표는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 현안과 정책을 결정하는 게 화가 난다"며 "마취과 전공의로서 소아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꿈꿨으나 그 꿈을 접었다"고 말하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방조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하고 수사

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이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도 출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수사는 선택의 권리와 자유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그간 열악한 현실에서 우리나라의료를 떠받쳐 온 젊은 의사들이 필수로 현실에서 풀이오기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학생들에게 대화하고자 기민하며 복귀를 종용하지 말라는 지적도 있다. 경찰 출석요구를 통해 불통과 겁박의 정점을 찍은 정부가 그런 말을 내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손 맞잡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 연합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검찰 수사가 흥기가 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흥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등 분열 조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고, 특히 부울경 지역을 당 부했다.

하지만 지난 총선 이후 어색해진 친문계와 관계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사실상 자신의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